

인간과 식물의 관계 “예의를 생각하다”

‘염중호 개인전-예의를 잃지 맙시다’ 7명 작가 협업 작품도 선보여

2013년 06월 23일 (일) 13:43:58

김대희 기자 ✉ newsmoney@empas.com



▲ 예의를 잃지 맙시다, inkjet print, 110x110cm, 2012(이미지제공=염중호, Photo=Courtesy of the artist).

작가 염중호가 자신의 사진 작업 및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전시를 선보인다.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이트컬렉션에서 염중호 개인전 ‘예의를 잃지 맙시다(Let’s Remain Courteous)’가 열린다.

염중호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도시 환경 속에서 식물이 어떻게 인간의 재단에 적응하고 극복하고 생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 주변의 버려지고 지나쳐버리곤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 온 그는 인간 중심의 도시 환경에서 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리고 자신이 포착한 식물들을 통해서 공존에 대한 일종의 예의를 생각해본다.

전시제목 ‘예의를 잃지 맙시다(Let’s Remain Courteous)’는 미셸 우엘벡(Michel Houellebecq)의 소설 ‘지도와 영토’의 주인공이 초대된 그룹전의 전시 제목에서 비롯됐다.

전시는 인공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식물의 모습을 기록한 염중호의 사진들과 그와 협업을 한 7명의

작가들(강석호, 권경환, 김수영, 로와정, 리오넬 사바테, 박진아, 최대진)의 작품을 선보인다.



▲ 예의를 잃지 맙시다, inkjet print, 110x110cm, 2012(이미지제공=염중호, Photo=Courtesy of the artist).

인간에 의해 식물에게 주어진 조건들과 인간들이 식물을 인지하는 태도의 문제, 자연이 훼손되고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의 존재위상과 생태를 무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작가의 시선에서 도시 풍경사진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염중호의 작업은 인간에 의해 식물에게 주어진 조건과 인간이 식물을 인지하는 태도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고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존재의 위상과 생태를 무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의 시선을 도시 풍경 사진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는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에 대한 투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싶다고 보다는 그저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식물이 처해있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환경의 독특한 모습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코멘트 한다. 그는 식물에 대해 우리 인간이 취하는 예절에 대해 고민하고 식물들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 리오넬사바테, 어둠의 재생 2, 나비-손톱-피부-핀-표본상자, 26x19.5x7cm, 2013(이미지제공=Galerie Patricia Dorfmann, Photo=Courtesy of Galerie Patricia Dorfmann)

염중호가 촬영한 이미지를 7명의 작가들에게 보내고 각 작가들은 그 사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반응하여 자신의 작업으로 발전시켰다. 예외적으로 박진아와의 협업은 사진을 선택하지 않고 그림편지 형식으로 진행됐다.

염중호 작가는 자신이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작가들과의 협업이 가능했다. 그에 따라 다른 작가들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기대하고 협업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 또한 작업의 일부가 된다.

이번 전시는 다르게 읽혀지고 새롭게 해석되어 재탄생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염중호 작가의 작업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이미지 해석 프로젝트이다.

김대희 기자

